자비로 희망 전한 글로벌 '연꽃 세상'

〈Global〉

15년 백서 발간한 로터스월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세계 곳곳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묵묵한 발걸음으로 희망의 씨앗을 전해온 로터스월드가 지난 15년의 활동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함께한 기억을 담다'에는 2004년 국제NGO로 첫발을 내딛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진 발자취가 사진과 도표, 각종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불교계 NGO를 대표하는 국제개발협력NGO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번 백서 발간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겠다는 다짐이다.

백서는 세상의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정진하겠다는 로터스월드의 초심을 상징한다. 동시에 지난 세월 로터스월드와 함께해 준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도 고스란히 담아냈다. 무엇보다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미얀마와 라오스에 이르기까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궈낸 다양한 성과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는 점에서, 이를 토대로 국제개발협력NGO가 나아갈 방향성과 노하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편집자주〉



로터스월드가 걸어온 걸음마다 희망의 싹이 움텄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이어진 자비행은 개인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교육환경 개선은 로터스월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캄보디아 로터스희망미용학교 학생들.

로터스월드는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며 첫 발을 내딛었다. 같은 해 캄보디아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1만 2000여 평의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2005년 '로터스월드 아동센터'를 착공했다. 2002년 캄보디아 지원사업을 공식선언한 지 불과 3년만의 결실이었다.

2006년 완공된 아동센터는 로터스월드의 진정한 출발점이자 그 정체성을 상징한다. 차별 없는 교육을 통한 보육·복지를 위해 열악한 환경 속 빈곤아동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사했기 때문이다.

아동보육사업은 점차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지역 식수개발, 교육환경개선, 직업훈련 교육, 사회적 기업 운영 및 아동결연 사업, 집짓기 캠페인을 통한 주거개선까지 확대됐다. 다양해진 사업만큼 캄보디아 곳곳에 연꽃과도 같은 희망이 움텄다.

2009년에는 아동센터 부지에 BWC화엄다목적센터가 설립됐다. 로터스월드는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한국 초청사업을 통해 열악한 현지 의료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생명살림에 나섰으며, 김안과병원과 협약을 통해 백내장 무료수술 및 의안지원 캠페인을 전개했다. 초등학교 화장실 및 위생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등 아동센터 입소 아동을 넘어 인근 지역 아동들의 보육·교육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새롭게 건립하고 교실에 교재와 책걸상을 지원하고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지원하는 등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이끌었다.

2011년 문을 연 로터스희망미용센터는 캄보디아 청장년 세대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의 새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기술교육을 취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에는 미용학교 최초로 캄보디아 교육부 인증을 받았고 같은해 '사회적기업' 형태의 미용실을 개원하는 성과를 일궜다.

교육, 주거, 의료, 노동 등 기본권이 보장되는 지구촌을 일구기 위한 로터스월드의 꾸준한 노력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토대이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단발성 혹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 속 개개인이 처한 환경을 토대로 한계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로터스월드는 점차 미얀마와 라오스까지 활동범위를 확장했다. 2010년 미얀마 지부를 설립하고 교육환경 개선, 취약계층 청년 자립, 식수환경 개선,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착수했다. 로터스월드 미얀마지부의 여러사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적기업 '두부공장' 운영이다.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 연계 및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두부콩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2018년 설립한 두부공장은 날로 성장을 거듭해 미얀마 양곤 내 마트체인과 한식당 등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등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2020년 이전불사를 통해 규모를 확장하는 등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3년 설립된 라오스지부는 열악한 교육시스템 개선, 지역활동가와 주민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마을청소년센터와 청년활동가워크숍 등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삶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 라오어 교수법·문화예술 및 학생관리 교육 등 교사들의 역량 강화 사업은 인식개선 성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라오스의 경우 도농간 빈부격차가 크고 외부자원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는 현지 특성을 반영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화를 지키는 동시에, 변화흐름에 발맞춰 마을에 적합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로터스월드의 이같은 사업들은 △교육의 평등한 권리 △지구촌 협력 △지속가능한 개발 △자립가능한 개발 등 4가지 주요목표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서원이다.

로터스월드는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미얀마와 라오스까지 이어진 다양한 사업성과 및 노하우를 토대로 스스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해 나갈 것"이라며 "후원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구촌의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수많은 인연으로 이어진 가피에 감사"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로터스월드가 걸어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가피로 느껴집니다. 로터스월드를 믿고 신뢰해 주신 여러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사진〉은 백서 발간의 이유를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로터스월드의 현재는 지난 세월 함께해 준 후원자와 관계자, 임직원들 덕분이며, 언제나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준 불교계가 있었기에 지난 세월 흔들림 없이 초심을 지켜올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성관 스님은 "세상사는 여러 가지 인연과 이해관계 속에서 이뤄진다"며 "열정 넘치고 긍정적인 임직원들과 로터스월드를 신뢰해 주신 많은 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로터스월드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서 발간이 로터스월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도 매순간 변화하는 만큼, 지난 발자취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성관 스님은 "2004년 낯선 캄보디아에서 인연을 맺었던 빈곤아동들이 이제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인재로 성장했다. 이는 차별 없는 교육이 희망을 만들고 그 희망이 결국 개인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격과 형태가 점차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분명한 원칙과 지향점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15년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교육이야말로 더 나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하는 해법이라는 것.

스님은 "연꽃을 피우기 위해 건강한 뿌리가 필요하듯 사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로터스월드가 지난 15여 년 동안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에서 기초교육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매진해 온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빈곤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에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동교육은 물론,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 등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로터스월드는 컴퓨터와 자동차공학, 제빵제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스님은 "제3세계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늘 변수와 어려움의 연속"이라며 "현지 및 파견 직원들의 의지와 열정, 후원자 분들의 변함없는 믿음, 이를 기반으로 현지와 공고하게 구축돼 온 신뢰관계가 있기에 이 또한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는다"고 신뢰를 전했다.

한편 로터스월드는 부처님오신날 수원 보현선원에서 백서 봉정식을 봉행할 계획이다. 송지희 기자

